전통과 현대가 만나
뿌리내린 제자훈련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의 목회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남동쪽의 작은 도시 여수. 인구 31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작은 도시에 손양원 목사가 뿌려 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제자훈련 목회로 계승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바로 여수산돌교회(담임: 신민철 목사)가 그 교회이다.

여수산돌교회는 손양원 목사가 여수성산교회를 담임했을 때, 손 목사의 조사(오늘날의 전도사)로 섬겼던 서현식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다. 서현식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순교지를 찾아 그곳에 순교기념비를 건립할 정도로 손 목사를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 했던 귀한 목회자였다. 바로 그 아름다운 기초 위에 여수산돌교회의 2대 목회자인 신민철 목사는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목회를 쌓아 올렸다. 전통적인 목회자상과 현대적인 교회론이 만난 것이다. 이 놀라운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그 곳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월간 〈디사이플〉에서 취재해 보았다.

1. 옛것을 지키고 새것을 품다

신민철 목사는 여수산돌교회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여수산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해 주었다.

"여수산돌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회자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1대 목사님이셨던 서현식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시려고 애쓰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수산돌교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중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지요."

1대 담임목사인 서현식 목사는 85년 3월에 손양원 목사의 호를 따라 여수산돌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개척 후 5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90년 3월에 신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되었다. 부임을 했을 당시 성도가 120명쯤 되었다. 부임을 한 후 신 목사는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기존의 목회를 갱신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사실 부임 전부터 신 목사는 "앞으로의 목회는 교육목회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확신은 사회생활을 7년이나 하면서 평신도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목회자가 된 신 목사의 오랜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할 것인가였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해답을 CAL세미나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신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다.

CAL세미나를 통한 제자훈련이야말로 여수산돌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엔진임을 깨달았던 신 목사는 본격적인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제자훈련은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자훈련 목회를 한 것은 92년도지요." 이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이 벌써 15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수산돌교회는 재적 성도 1,200명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신민철 목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수산돌교회에는 새것과 옛것의 조화가 있었다. 여수산돌교회는 '목회자는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목자여야 한다'는 옛것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에 '목회자는 평신도를 훈련시켜 목회의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는 새것을 접목시켰던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나머지 과거의 전통을 쉽게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여수산돌교회에서

신민철 목사

옛것은 새것을 탄생시키는 자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새것은 옛것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새것과 옛것의 가교 역할을 신민철 목사의 리더십이 훌륭히 감당해내고 있었다.

2. 인격이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민철 목사의 리더십이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신민철 목사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인격에 바탕을 둔 리더십이었다.

인터뷰를 위해서 만났던 박점수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신 목사의 리더십은 인격에 있다고 말했다. "신 목사님은 한 마디로 덕장입니다. 조용하고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목사님의 말씀에는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삶을 다 꿰뚫고 계시고 우리를 다 포용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스펀지와 같은 포용력이지요."

이런 평신도들의 평가에 대해 신 목사는 지나친 칭찬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저는 리더십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평신도들로부터 획득하는 권위이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리더십을 규정할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 목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언급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신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헨리 나우웬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헨리 나우웬은 목회자

란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면에서 신 목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었다.

신 목사의 이런 인격은 손양원 목사로부터 서현식 목사에게 전해졌던 '인격적 목회' 라는 소중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제자훈련을 통해 인격과 인격이 만나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신 목사의 인격적 리더십은 여수산돌교회의 옛것과 새것을 아름답게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목적이 이끄는 교회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 여수산돌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신 목사는 15년 동안 변함없이 사용해 온 이 표어를 소개했다.

"교회란 성숙하면서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성장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숙과 성장은 제자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 목사는 제자훈련이란 크게 두 가지 영역의 훈련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제자훈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제자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신 목사는 다시 7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 말씀, 기도, 교육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전도, 봉사, 교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 일곱 가지 목표는 윌로크릭교회의 5G(은혜, 소그룹, 성장, 은사, 청지기직)나 새들백교회의 5M(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사랑의교회의 3대 비전(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교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목표는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북극성과 같았다.

"이 목표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앞으로 할 사역들을 평가했지요. 이런 목표가 없었다면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가 건강한 방향제시자(pathfinder)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목회자들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목회의 전부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목회는 성실만큼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성실한 것은 차라리 성실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신 목사는 바로 이 원리를 이미 깨닫고 여수산돌교회를 섬기는 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적용 사례 중, 독특한 한 가지가 바로 '설교' 였다. 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이 일곱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제 설교는 일곱 가지 목표를 끊임없이 되짚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들의 성숙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이 일곱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대지를 구성합니다."

신 목사의 이런 일정한 목표에 따른 설교가 접목됐기에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다. 비전이 단순한 구호 역할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신 목사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4. 남성을 살려라

신민철 목사가 여수산돌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특별히 치중하고 있는 사역은 남성 사역이었다. 신 목사의 고민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어떻게 하면 남성들을 성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성들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우선 남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신 목사는 남성들을 위한 제자훈련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남성들이 모일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새벽 4시 30분에 하는 제자훈련이었다. 여수산돌교회 남자 제자반, 사역자반 훈련생들은 새벽 4시 30분에 교회로 나와 훈련을 받는다. 제자훈련이 끝나면 아내들이 만들어 준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 곧바로 직장으로 출근한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생들의 강한 열정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신 목사의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남성들을 가정의 지도자로 만들 것 인가였다. 이를 위해 신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섭리인 가정회복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부부 대상으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남성들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려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가정사역 세미나는 부부 동반으로 매년 2월에서 4월경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는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 부부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남편까지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 목사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배우자이며, 자녀, 부모,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종이고, 이를 위해 가정사역 세미나를 여는 것입니다."

신 목사의 세 번째 고민은 어떻게 남성들을 교회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할 것 인가였다. 이를 위해 신 목사는 매주 모이는 구역 모임을 부부동반 모임으로 바꾸고, 남성 인도자를 세웠다. 각 구역을 섬기는 리더부부 중, 아내는 모임 준비를 맡고 남편은 예배 인도자로 모임을 이끌며 역할을 나눈 것이다.

"부부끼리 모임을 갖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하지만 남성들을 어떻게든 구역에 참여시키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열매로 현재 여수산돌교회의 출석 성도 중,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약 4:6이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가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2:8이거나 좀 낫다면 3:7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수산돌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이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수산돌교회는 남성 사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젊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수산돌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는 주역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신 목사에게서 남성 사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볼 수 있었다.

5. 제자훈련이 없었더라면…

여수산돌교회의 평신도지도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은 제자훈련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점수 장로(3기)는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도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제 안

에 없었습니다. 이 고민이 계속되다 보니 침체에 빠져 오랫동안 해 오던 주일학교 교사직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앙 양심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했던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바로 제자훈련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박 장로에게는 제자훈련 교재 2권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2권을 통해 체계적인 구원의 교리를 배움으로써 파편적이고 불완전했던 신앙 골격이 비로소 통합된 것이다. 제자훈련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여전히 의문덩어리를 마음에 품은 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박 장로는 거듭 감사해했다.

제자훈련에 대한 감사는 강화순 권사(4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강 권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했다.

"저는 평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은 남편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하여 제 삶을 점검하게 되었고, 이기적인 신앙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제 모습을 통해 남편이 변화되어갔고, 남편도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주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올 1월 제자훈련 8기를 수료한 박명진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한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부관계도 좋은 편이라 다른 가정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지체들을 보니까 힘겹게 고생하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체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대인관계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신 목사도 제자훈련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목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셨으며, 제가 목회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여수산돌교회는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 때가 어떻게 보면 교회와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분열되거나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어요. 저는 그것이 제자훈련의 열매이고, 제자훈련을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 목사의 얼굴에 행복과 감사가 가득 흘러넘쳤다.

박점수 장로

"여수산돌교회는 신민철 목사의 '인격적 목회'라는 소중한 전통과 '제자훈련'이라는 현대목회가 만나 성숙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박명진 집사

강화순 권사

6.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맡겨라

여수산돌교회의 역사를 단계별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신 목사는 4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해 주었다. 첫 단계는 85년 서현식 목사가 개척한 후부터 은퇴를 한 90년까지의 시기로 '개척기'에 해당했다.

서현식 목사는 원래 여수중앙교회의 담임목사였는데,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교회 하나를 개척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여수중앙교회를 사임하고 여수산돌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따라서 첫 5년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목사를 위해 개척교회를 자립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던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90년 신민철 목사가 부임한 후 95년 1월에 교회 건축을 완성하기까지의 시기로 '건축기'라고 볼 수 있다. 신 목사는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부구조인 건물을 갖추는 일이라 생각했다. 이 작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94년 1월에 시공하여 95년 1월에 입당하게 됐다.

세 번째 단계는 95년 이후 2004년까지의 10년 동안으로 '성장기'였다. 이 기간 동안 신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말한다.

"저는 옥 목사님 말씀처럼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제 목회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11~2절의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이제 2005년부터는 여수산돌교회 역사의 네 번째 단계인 '사역기'를 열겠다고 신 목사는 다짐했다. 지금까지 사람을 세움으로써 축적된 역량을 이제는 교회 안팎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부름 받은 특권을 누리는 데만 치중해 왔고, 보냄 받은 사명을 성취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름 받은 특권이 보냄 받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자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데 힘을 쏟은 거지요. 이제는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수산돌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시도하고 있었다. 교회를 취재했던 날에는 때마침 여수산돌교회 청년대학부 주최로 어노인팅을 초청하여 2박 3일동안 예배사역자를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 여수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호북성 지역에 한족 교회 3개를 건축했다고 한다. 또한 구역헌금을 모아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수술비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제는 '오는 구조'에서 '가는 구조'로 교회를 혁신시키겠다는 신 목사의 다짐을 들으면서 에베소서 4장 11~12절이 다시금 생각났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분명히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봉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 신 목사는 바로 이 원칙대로 여수산돌교회를 섬겨 왔다. 그래서 여수산돌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목사가 목회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목회를 지키신다는 말이 있다. 이런 성경의 원칙을 지킨 것이 오늘의 여수산돌교회를 있게 한 것이다.

7.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건강한 교회는 있어도 완벽한 교회란 없다. 모든 교회들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 여수산돌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취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수산돌교회는 이런 과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평신도지도자들과 그리고 신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여수산돌교회 평신도들은 대부분의 교회처럼 봉사에 지쳐 버린 평신도들이 아니었다. 거룩하면서도 크고 어려우며 대담한 목표(Big Hazard Audacious Goal)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평신도들이었다.

"여수산돌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인격적이고 점잖은 교회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평신도지도자의 고백 속에 지금의 여수산돌교회에 만족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투지가 보였다. 그것은 여수산돌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신 목사의 거룩한 열심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었다. 신 목사는 이런 열심을 구체화할 소망을 품고,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캐나다 밴쿠버의 예수전도단에서 목회자 DTS를 이수하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간이 저와 여수산돌교회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도약으로 삼아야지요."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이것은 '쉼'을 뜻한다. 쉼표와 마침표는 다르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단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성하고 계획하는 때이다.

신 목사의 이번 교육기간이 여수산돌교회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셀라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평신도가 동역하는 한 여수산돌교회는 제자훈련의 전진 기지요, 부흥의 진원지로서 강력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송정헌 목사〉